

여야 4당 “더이상 한국당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
교섭단체 원내대표 담판 무산
바른미래·단독국회 예정대로
4당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 ↑

6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됐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16일 담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만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바뀐(협상이) 깨졌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라며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 원내대표는 단독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하겠다”면서 “합의가 안돼 단독국회를 소집하려면 의총을 소집해야 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이견을 보인 부분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이어 “재해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김현아 원내대변인과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구, 민생해결, 경제활성화란 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 보면 제대로 된 재해제한도, 경기부양도 없다”라며 “정부여당은 예산심의권이란 헌법상 고유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경제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심본 양보해서(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농민 채 다시 기약

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지는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 경제와 민생을 막아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추경안이라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심사하라. 국회를 향하는 문, 국민을 향하는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

렸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회 정상화보다는 파행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동의한다면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과 17일 오전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축구대표팀, 국민에 행복 선물”

여야, U-20 월드컵 준결승 축하·격려 메시지

여야는 16일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일제히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U-20 월드컵 대표팀의 모든 선수와 감독진, 코치진 여러분 덕분에 온 국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보여준 화합의 팀플레이와 불굴의 투지는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감독님과 선수 한분 한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다. 기지개를 켜시다. 여러분의 도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우리 축구사에 새 역사를 썼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용기를 의 젊은 축구팀이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했지만 이긴 것과 닮았다”라며 “그러나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정치도 축구처럼 국민을 기쁘게 하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팀플레이’는 밤잠을 설치 국민들에게 피로를 잊게 한 순간이었다”라며 “우승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태극전사들은 모처럼 대한민국을 팀원(team one)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또 장외투쟁

주 1회 민생투어…국회 공전 장기화에 내부 회의적 시각도

국회 공전의 장기화 국면속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장외 일정에 나서고 있어 민심의 눈길이 따갑다.

지난달 25일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황 대표는 지난 7일부터 ‘희망·공감·국민 속으로’라고 이름 붙인 외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주 부산을 찾아 1박 2일간 일정으로 지역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주 1회씩 1박 2일 일정으로 민생투어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민심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

대표가 장외 행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당력이 분산되는 등 황 대표가 어정쩡한 위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외 행보에 치우치기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물을 정비하고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등 ‘총선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유연한 모습으로 중원을 파고드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황 대표가 보수를 넘어서 중원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집안 싸움 끝 ‘총선 앞으로’

혁신위 출범에 갈등 봉합…당 정책 홍보 전단 배포 ‘민심 잡기’

4·3 보궐선거 이후 극심한 내분을 거듭해온 바른미래당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뛰어들었다.

16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3개 지역위원회에 ‘바른미래당 바로 알기’ 전단을 위원회당 500~1000장씩 총 7만3000부를 배포했다.

전단에는 윤창호법 통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난민 지원 정책 등 바른미래당이 중점 추진한 7개 민생 법안·현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지역 현장을 훑으며 유권자에게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달 넘게 끌어온 당내 갈등이 ‘혁신위 위원회 출범’으로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바른미래당 제대로 알리기’를 본격적인 총선 준비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모양새다.

한 초선의원은 “그동안 집안싸움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며 “싸움 만큼 싸웠으니 앞으로는 일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현수막도 쟁점별로 길거리 곳곳에 걸어 지역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라며 “현수막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는 지난 13일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당을 순회한다.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줄곧 강조해온 ‘제3지대론’을 실행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대 양당을 심판하는 제3당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당 지도부와는 달리 예비 후보들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낮은 당 지지율 때문에, 일각에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기류까지 감지된다.

이 같은 불안감은 현재 바른미래당 의석 대다수의 기반인 수도권·호남보다도 그 밖의 지역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더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 초선의원은 “확실히

지역색이 없는 제3당의 입장에서 유권자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수도권보다 지방에 출마하는 것이 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당 바깥에서도 바른정당계를 고리로 한 ‘보수 대통령’, 국민의당계 일부를 포함한 ‘호남 신당’ 등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둔 정계개편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예비 후보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계파 간 반목이 위험 수위에 달한 데다 ‘보수’, ‘중도’ 등 이념 간극도 여전하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지는 듯한’ 내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재선의원은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솔직히 총선까지 당이 살아남을지 없어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지역에서 명함을 돌리는 건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문종 “대한애국당과 함께 할 것”

이번주 한국당 탈당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4선 친박(친박근혜)계인 홍 의원은 “조만간 탈당선언문을 배포하고 탈당계를 당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홍 의원이 탈당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집회에서 홍 의원의 한국당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홍 의원을 우리 당 공동대표로 추

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탈당이 입박함에 따라 한국당 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추가 탈당’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홍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는 10~12월 많으면 40~50명의 한국당 의원도 (탈당에) 동조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원진 대표는 “향후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신(新)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독암리 청정바닷가 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방 출몰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완도군 완도를 망석리 도로점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허가 1억5백
- 광안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안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면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산 97404㎡ 은행 5억3천 기타 5천 매도 5천만원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임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완벽 팬션출몰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 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